

코로나19, ICCN 소속 도시들의 대응방안

홀리오 나세르

국제무형유산도시연합, ICCN

무형유산은 우리의 선조들이 심은 정수와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성장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그것을 만들고 지켜온 사회의 문화적 상징이자 정체성의 상징으로서 세대를 걸쳐 우리에게 도달한 살아있는 유산이다.

이 살아있는 유산은 우리가 코로나19가 초래한 글로벌 팬데믹과 싸우고 있는 지금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에서 언제나 대부분의 공동체를 위한 회복탄력성, 연대와 영감의 원천이었다. 우리의 무형유산은 수차례, 일부는 최근에 그리고 일부는 이미 오래전에, 팬데믹, 전쟁,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가 살아남은 다른 변화들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유산은 인류로서 우리가 가진 전통이 적응하고 맞서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우리의 표현들 중 많은 것들이 세계화의 물결 앞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과시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우리의 것과 아무런 관련 없는 전통들과 거리를 둔다. 그러나 이 순간, 지구화는 우리로 하여금 유산 보호에 관한 정보와 전 세계 공동체의 팬데믹에 대한 반응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ICCN(국제무형유산도시연합) 회원들로부터 얻은 반응들이다.

ICCN은 현재 스페인 알헤메시에 사무국을 두고 있고, 31개의 국가, 29개의 도시, 34개의 협회가 소속된 지역 정부 및 문화기관들의 국제기구이다. 주된 목적은 전 세계 무형유산 보호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촉진이다. 게다가, ICCN은 상호이해와 문화 간 대화를 통해 같은 문화의 일부인 서로 다른 주민들 사이에서 문화적 평화도 추구한다.

매년 ICCN은 총회 또는 시장들의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모든 ICCN 회원들의 일을 조정하고 ICCN의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총회와는 별개로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의 시작은 최대 10개의 회원으로 강릉(한국), 이스파한(이란), 베이트 사후르(팔레스타인), 파야누르(인도 케랄라), 각티체 코파니체(슬로바키아), 알헤메시(스페인)의 도시들을 대표하고, 주된 기능은 ICCN의 연례 의제 설정이다. 반면, ICCN의 활동을 관리하는 매일의 업무

는 현재 스페인 알헤메시에 위치한 사무국이 수행한다. 이전에는 사무국이 한국의 강릉시에 있었다.

총회는 2012년 강릉(서울), 2013년 두브로브니크(크로아티아), 2014년 이스파한(이란), 2015년 슬로바키아, 2016년 시실리(이탈리아), 2017년 베이징(중국), 2018년 알헤메시(스페인), 2019년 베이트 사후르(팔레스타인)에서 개최되었다.

2020년 총회는 지난 6월 22일~25일 한국의 강릉시에서 열려야 했지만, 우리가 고통 받고 있는 국제적인 보건 상황 때문에 취소되었다.

이 모든 사회적 표현들은, 문화 및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다른 경험과 대부분 적용될 수 있는 공통되는 기반을 공유한다.

- *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의 일상을 방해하는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문화 및 전통 행사들의 취소를 초래했다. 이들 중에는 스페인 알헤메시의 마레 데 데우 데 라 살루트 축제 또는 한국 강릉의 단오제 등 유네스코에 의해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축제들도 있었다.
- * 축제와 문화행사들의 취소는 지역 산물의 판매 또는 방문객 환대를 통해 이러한 기념식을 수입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 * 긍정적 측면으로는, 최근 역사상 유례없는 전국적, 국제적 가시성을 제공한 전통의 공유와 보도에 있어서 대중매체와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지난 8개월간의 연락 후, 우리는 알헤메시(스페인), 강릉(한국), 파야누르의 포크랜드 국제 센터(Folkland International Center)(인도 케랄라), 베이트 사후르(팔레스타인), 하노이 베트남 여성 박물관(베트남)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마레 데 데우 데 라 살루트 (스페인 알헤메시)

건강의 성모 마리아상에서 나와 의례와 춤의 구성에 맞춰 날아다니는 화려한 나비가 올해를 알헤메시에서 가장 특징적인 기념식으로 선언했다. 9월 7일과 8일에 기념하는 축제는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되었지만, 조직위는 전통이 살아있도록 올해의 포스터를 편집했다. 올해는 축제라는 단어를 피하고, 포스터는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경의의 표현이 되었다. 이미지 아래 적힌 표어는 ‘건강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였다.

포스터 디자인은 나비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한다. 자세히 보면, 날개가 춤과 의례의 형태와 색상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더 가까이 살펴보면 나비가 건강을 얻기 위해 애쓰면서 어떻게 성모마리아의 형태를 구성하는지 볼 수 있고, 위로 날아오르는 모습은 우리가 다시 누리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자유와 일상으로의 복귀를 상징한다.

팬데믹에 대한 사회와 공동체의 대응 중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든 행사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봉쇄가 시작된 이후 축제를 위한 유례없는 무형유산 연대와 방송 활동을 가져왔다.

알헤메시 축제는 중세(1247)에 시작되어 많은 대중이 참여하는 축하 행사이다. 할아버지에서 부모로, 그리고 아이들로 전달된 이 의례는 일련의 미스터리와 순교에 관한 이야기들과 200여 개의 돌사이네스(dolçainers)에 의해 연주되는 63개의 곡들, 스콜라 칸토룸(Schola Cantorum)과 지역 음악 밴드의 합창으로 구성된다. 그중에서도 두드러지는 것은 무익세랑가 데 알헤메시(Muixeranga de Algemesi)의 엄숙하고 리드미컬한 소리이다. 이 선율은 도시의 경계 너머로 그 상징적 힘을 확대해 모든 발렌시아 사람들의 문화유산이 되었고, 2011년부터는 전 세계 시민들의 문화유산이 되었다.

성서의 표현들과 백 년간 이어져 온 춤은 로마,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의식을 연상시킨다. 이것은 이 땅의 정수가 녹아든 문화, 악기가 만들어내는 소리에서, 선율을 위한 영감에서, 축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상에서 구체화되는 문화들이다.

돌사이나(dolçaina)와 타발(tabal)의 음악, 무익세랑가(Muixeranga)로 알려진 인간 탐과 함께 연주되는 관현악곡, 바스토네츠(Bastonets), 파스토레테스(Pastorettes), 카르소파(Carxofa), 아르케트스(Arquets), 야우라도레스(Llauradores), 토르네한트스(Tornejants), 볼란트스(Volants, 성모 운반자들)의 춤 공연은 집단의 기억을 재현하고 자극하며 시각과 청각을 통해 위대한 화합이라는 공통의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축제행사동안 알헤메시는 종교의식,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풍경, 그리고 1,4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렬이 지나가는 17세기 기념비적 환경을 구성하는 신앙과 문화의 사회적 틀과 함께 지중해와 발렌시아 전통의 살아있는 박물관이 된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유네스코의 제6차 정부간위원회는 마레 데 데우 데 라 살루트 축제의 무형유산 등재를 결정했을 때 “알헤메시의 전 사회가 그들의 전통을 보호하고 영속화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봉쇄 기간,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영향에 주목했다. 춤과 의례에 참여하는 다양한 집단의 혼

련은 연중 이어지지만, 최종 준비는 7월에 시작한다. 봉쇄 기간 모든 집단은 국제적 역학을 따랐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일련의 공연들을 보여주면서 집에서 화합의 메시지를 나누었다. 발렌시아 축제박물관에서 우리는 한국, 인도, 이란,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프랑스, 에스토니아, 베트남, 스리랑카, 팔레스타인과 의례를 동반한 공연을 공유하고 교류했다.

사람들의 봉쇄는 공동체의 나머지에서는 보통 잠잠한 수개월 동안 전통 의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돌사이나와 타발 학교들은 온라인으로 훈련을 계속했다. 그리고 의례 댄서 무익세랑가 또는 토르네한트스도 온라인으로 지도를 계속했다.

발렌시아 축제박물관은 문을 닫았지만, 내부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돕고 ICCN을 통해 다른 모든 연대의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업무를 이어갔다.

우리는 또한 스페인어, 카탈로니아어, 영어로 제공되는 문서 정보와 함께 다양한 춤의 파노라마 전경과 사진, 360도 영상을 통해 박물관과 9월의 축제에 온라인 방문을 시작했다.

이 경험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독일, 포르투갈, 멕시코, 콜롬비아, 영국, 벨기에, 아르헨티나,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브라질, 우크라이나, 스위스, 우루과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페루, 안도라, 체코, 베네수엘라, 불가리아와 리비아가 뒤를 이었다.

타운홀과 축제 게시판

6월, 축제는 확실히 취소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의례 행사만 치러졌다. 타종은 기계로 이뤄졌고 니트 델 레토른(Nit del Retorn, 돌아온 전야) 콘서트는 실내에서 관중 없이 진행되어 지역 방송국을 통해 방송되었다.

9월 6일과 7일, 소셜 미디어에서 #AlgemesiUNESCO2020 해시태그를 활용해 축하 사진들이 넘쳐나는 성공적인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축제 자체가 취소된 사실은 제외하고, 무형유산은 최소한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의례 무용에 참가하는 집단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계속 연락을 취했고, 봉쇄가 해제되었을 때 필요한 안전 조치들을 지키며 주기적인 회의를 열었다.

약간 영향을 받은 유일한 춤은 무익세랑가이다. 인간 탐의 정상에 오르는 소년 소녀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이들의 나이와 몸무게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축제의 취소는 카르소파(Carxofa)와 아르케트스(Arquets) 춤에 참가하는 소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특정 나이가 되어야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춤에 참가하기 위한 대기 목록은 매우 길고 새로운 소녀들이 참여할 준비가 되어 추가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의례는 축제가 연기된 것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지역 악단과 돌사이나와 타발

학교는 온라인상에서 모였고 전통적인 교육에서의 나머지 학생들이 그랬듯이 새로운 기준으로 돌아갔다.

9월 7일과 8일 축제는 매체에서 공개되었고 발렌시아 지역 방송국은 2019년 축제의 전 과정을 방송했다.

단오제 축제 (한국 강릉)

강릉 단오제는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1967년부터 한국의 국가 무형문화재 제13호이다. 축제는 조선 시대 민속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개최되고 1975년부터 인기 있는 축제였다.

단오제는 대관령국사성황제(강릉을 보호했다고 믿어지는 승려 범일국사에 바치는 제사)와 영신제(신을 맞이하는 의례) 등의 의례를 포함한다. 이러한 의례의 뒤를 이어 민속공연, 씨름, 그네타기, 줄다리기가 벌어진다. 단오제 동안 방문객들도 전통 혼례 의식 보기, 수리취떡 만들기, 창포물에 머리 감기, 신에게 바친 음료 마시기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한다. 지역 사투리 경연대회와 그 외 문화적 프로그램들도 있다. 조직위는 2020년 축제의 취소를 결정했지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전통이 살아있게 했다. 지역 방송국은 무관중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며 열린 의례 일부를 방송했다.

포클랜드 민속문화국제센터(Folkland International Center for Folklore and Culture) (인도 케랄라 파야누르)

포클랜드 민속센터는 인도 케랄라 파야누르에 자리 잡은 민속문화를 홍보하는 NGO이다. 1860년 인도 사회법에 의해 등록된 조직이고 1989년부터 존재했다. 주된 영역은 공연 예술, 구전전통, 수공예, 의례와 축제이다. 본 기관은 팬데믹 동안 ICCN 회원들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고, 최근 수개월간 거의 매일 온라인으로 전통, 수공예, 의례 또는 축제에 관한 경험을 공유했다.

아래는 봉쇄기간동안 포클랜드 민속센터의 설립자인 자야라잔 (V. Jayarajan) 박사가 공유한 경험 중 하나이다.

“인도의 많은 주들은 우기에 사용하기 위해 야자나무 잎과 다른 생물 소재로 만든 다양한 종류의 토착 우비와 우산을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인도 아대륙의 마을과 산간 지역, 그리고 특히 북동부 주들에 사는 사람들은 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종류의 생물 소재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우비와 우산들은 심지어 오지에서도

흔한 광경이 아니다. 야자나무 잎으로 만든 우산과 천연 우비는 이미 접이식 우산과 플라스틱 비옷으로 대체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케랄라주 토착 공동체에 속한 수공예 장인이 잎과 줄기를 이용해 우비를 만드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카사르고드(Kasargod)에 사는 암바디(Ambadi)씨는 우비를 만드는 데 능숙하고 팬데믹 기간에 다시 우비를 만들기 시작했다. 포클랜드의 지원으로 그는 40년간의 공백기 끝에 수공예를 시작했다. 이것은 지역 언어로 코람바(Koramba)라고 불린다. 코람바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올라 코람바(Ola Koramba)는 코코넛 잎으로 만들어졌고 2년간 쓸 수 있다. 두 번째는 야자나무 잎으로 만든 코람바(Pana Ola Koramba)이고 세 번째는 갈대 사이에 뿌리식물의 잎을 끼워 넣어 만든 마라 코람바(Mara Koramba, 나무 코람바)이다. 이런 종류의 우비는 수십 년간 쓸 수 있다. 오랜 전통의 재창조와 함께, 암바디씨와 마빌란 토착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은 봉쇄기간동안 부족 집단 내에서 코람바 수공예 기술을 되살림으로써 전통기술을 보존했다. 이것은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체의 열렬한 관심을 지지한다. 더 많은 목재 우비를 만들게 되면서 전 공동체가 더 많은 갈대와 약초를 심게 되었다.

베이트 사후르(팔레스타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는 팔레스타인의 일상을 뒤흔들었고 많은 전통적인 사회 및 문화 활동과 행사들을 취소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연례 성모마리아 행렬은 거행되었지만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제한들로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신성한 행사에 수반된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다.

공동체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여러 활동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항했다. 여성이 이끄는 위원회는 지역 여성과 가족들을 위해 줌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과 안전한 집안 환경을 유지하는 것에 관해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많은 현지인에게 주된 이슈는 일자리와 사업을 잃은 것이고 이것은 많은 가족들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 유산 활동 중 하나는 농업 프로젝트이다. 시민들은 자신만을 위한 식량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에 대한 접근권을 주기 위해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 자신들의 땅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체와 농업 유산을 수용했다.

현지 가족들은 식량 재배에 사용되도록 자신들의 토지 사용권을 베이트 사후르 시에 기증했고 이것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공동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현지인들 간 사회적 협력에서 나타나는 사후리 유산의 정신을 반영한다.

베이트 사후르의 유산을 반영하는 연례 전통 활동들이 취소되면서 무형유산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았고 지역 공동체에 사회문화적 간극을 남겼다. 역사적인 구도시 베이트 사후르를

활성화하고 되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공예품이 판매되고 전통음악이 수반되는 지역 축제인 히카야 시장과 같은 필수적인 공동체 행사가 올해는 열릴 수 없었다.

문화유산에 속하는 다른 여러 행사들도 취소되어 베이트 사후르의 사회생활에 유형의 공허감을 남겼다. 이러한 축제와 행사들은 베이트 사후르의 전통적인 트레이드마크이고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주었지만, 이들이 취소되면서 추가적으로 무형유산도 파괴되었다.

전통 결혼식의 중단은 팬데믹의 엄청난 영향을 보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이다. 이 중 “헤나의 밤(Henna Night)” 혹은 “송별의 밤(Farewell Night)”이라고 불리는 활동은 결혼식 전 마지막 날에 신부를 위한 축하 행사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오래된 풍습이고 아랍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의례 중 하나가 되었다. 이 행사는 밀집된 모임과 신체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 참석자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퍼질 것을 우려해 이 특별한 밤을 둘러싼 의례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축제의 취소는 현지 상품을 판매하며 이러한 문화적 행사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지역 음악가들과 문화 프로그램들은 축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 방송국에서 공연과 쇼를 방송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것은 실외에서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음악과 프로그램을 즐기는 것과 같지 않다.

베트남 여성 박물관(베트남 하노이)

베트남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해 신속히 활동을 수정한 박물관 중 하나인 베트남 여성 박물관(VWM)은 “관람객이 박물관으로 올 수 없다면 우리가 박물관을 집으로 가져간다”는 표어를 채택했다.

실제로 박물관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초점을 디지털 참여로 옮겼다. 박물관 직원들은 집에서 박물관 전시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했다. VWM은 또한 봉쇄기간동안 교육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해 방송물을 제작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인구학적 배경의 시청자들에게 베트남 여성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할 수 있길 바라며 박물관 내 유물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한 일련의 유튜브 영상이 포함된다. 추가로,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박물관 내 물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 동안 더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고 참여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기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직원들은 교육적 가치가 있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을 찾았다. 박물관은 페이스북에서 짧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초점을 이동시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시 활동에 가져온 도전들을 이해함으로써, 베트남 여성 박물관은 다양한 관객들에게 베트남 여성의 역사와 유산을 계속 공유하기 위해 새로운 웹사이트에서 두

개의 온라인 전시회를 만들어 공개했다. 이 전시회들은 VWM의 큐레이터들이 힘들게 편집하고 디자인한 콘텐츠와 이미지들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애국심과 자부심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돕는다. 이와 함께 문화 및 역사적 유물 수집에서 공통의 기대를 가진 기관들 사이에 유물 수집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니셔티브가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직원들은 여전히 가치 있는 물건들을 기부받고, 개인 수집가와 대중들로부터 수집품을 기부받고 있다.

박물관이 지금까지 수행한 모든 활동들은 부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이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요약하면, 코로나19가 무형유산을 대표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폐쇄되거나 취소된 박물관, 축제와 연회를 둘러싼 환대 활동에 부인할 수 없는 경제적 충격을 주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전통은 기억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봉쇄 기간 동안에도 매우 유용한 역할을 수행했다. 새로운 기술은 우리를 정의하는 문화적 요소들을 공유하고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멈추어야 할 필요성이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자신들의 과거와 자연에 연결시키는 공예 기술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었다. 언젠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무형유산은 공동체들을 위한 진정한 회복력의 거대한 보고로서 그 중요성을 보여줄 것이다.